

시조집

함박꽃

리상각 저

연변인민출판사

리상각시조집

함박꽃

리상각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박려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芍药花: 朝鲜文 / 李相珏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94-7

I. 芍… II. 李…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68116号

芍药花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875 字数: 14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94-7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시작노트	1
모국어를 지키는 정결한 시심	3
서시－해돋이	13

홍 학

홍학	17
허수아비	18
련못	19
폭포	20
화로불	21
갈숲	22
달빛	23
산딸기	24
청도바다	25

함박꽃

함박꽃	29
어미지향의 밤	30
이리 갈가 저리 갈가	31
허수아비	32
모기	33
물고기친구	34
바보강아지	35

봄

봄	39
여름	40
가을	41
겨울	42
봄천사	43
파도	44
고독	45
칠월칠석	46
세월	47
함박눈	48
바가지	49
사금파리	50
님	51
당신	52

2 · 함박꽃

하늘아	53
저녁노을	54
사랑	55

꿈

꿈	59
청도아가씨	60
해수욕장	61
푸른 섬, 하얀 갈매기	62
청도까치	63
산동고구마	64
팽이	65
물어보리	66
다람쥐	67
로산에 올라	68
고집	69
무제	70
조선족리촌시장	71
할 일이 태산	72

산사에서

산사에서	75
성지	76
거인	77

날씨	78
해와 달	79
개도 토기도	80
도깨비	81
고추	82
까마귀	83
양어장	84
황진이	85

집

집	89
현대비극	90
눈	91
술상	92
슬픈 일	93
작대기	94
전등불	95
모르는게 약	96
세금	97
고속도로	98
축배가	99
벨랑다	100
바람	101

초면인사

초면인사	105
진서리시래기	106
양구천문대	107
무궁화	108
어머님	109
수리개	110
미웠던 그 사람	111
아버지	112
짝사랑	113
농가	114
박꽃	115
붓꽃	116

나무와 바람

나무와 바람	119
철면피연설	120
첫눈	121
바다가의 바위	122
고향산	123
두꺼비자랑	124
새 식구	125
인생	126
가수	127

겨울쾌감	128
모래톱	129
리별	130

물물 피는 시골연기

물물 피는 시골연기	133
개미떼	134
이승과 저승	135
원앙새 한쌍	136
시조, 차렷!	137
시조핵	138
버들피리	139
밤	140
폭죽	141
고목	142
사모	143
만형의 참외도적질이야기	144
버드나무	147
태양원무곡	149
그놈이 그놈	151
수탉	152

리상각시인의 시조세계 일각(一角)	153
부록- 리상각작품집 출판년보	179

시작노트

시조는 쓸수록 재미가 난다.

나는 왜 일찍부터 시조를 쓰지 않았던가 후회되기도 한다. 시조도 제약성이 있긴 하지만 깊은 뜻을 집약시키고 매력적인 형상을 창조하는데는 우월한 우리의 전통문학형식이다. 산만하고 지저분한 결가지를 알뜰히 다듬어버리는 문학이다. 뜻을 채 담지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단순한 시가 아니요, 형식주의적인 글자맞춤도 아니다.

초장과 중장은 병렬되거나 서로 보충되고 종장에서 정서를 폭발시키는 3장 6구, 실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시문학이다.

나는 청도에 와서 시조를 꽤나 많이 썼다. 갑자기 많이 쓰면 작품질이 떨어진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래서 거듭 수개했다. 좋은 작품은 다듬어서 만들어진다는것도 알고있다. 고칠수록 좋아지는 기쁨을 느낀다. 일필휘지란 있을수 없다.

중국 청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이다. 이곳에 와서 시조를 쓰는 마음 또한 즐겁다. 나는 일찍 여러번 청도를 드나들었으므로 이곳 체험과 추억, 상상이 머리를 스쳐가곤 했다. 자녀들의 곁으로 와서 안해의 병치료를 하느라고 좀 어려운 나날을 보내면서 시조를 썼다. 나젊은 시우들과의 만남은 저도 모르게 창작의 정열을 더 부추겨주었다.

아무래도 급히 쓴것만큼 어수선했던 작품도 있다.
읽는이들로부터 많은 편달을 바란다.

모국어를 지키는 정결한 시심

문무학(한국 대구예술대 교수, 문학평론가)

I

2007년 8월 《시조월드》가 주최한 “민족시 포럼” 연변행사장에서 리상각시인을 처음 만났다. 잔잔한 웃음으로 맞아주던 인상이 오래 남는다. 단단한 체격이 강단 있어보이기도 했다. 그 시인이 《시조월드》에 시조작품을 발표한다. “소시집”으로 묶어 단수 14편을 선보인다. 중국에서 살면서 모국어를 지키고 사랑하는 정신이 하도 알뜰해보여 큰 감명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하는 14편의 작품은 크게 나누어 “만남”을 주제로 한 작품이 4편, 자연현상과 자연물을 노래한것이 5편, 우리 고전을 노래한것이 1편, 4계절을 노래한 작품이 각각 1편씩 4편이다.

먼저 주제가 만남으로 읽혀지는 작품부터 살펴본다.

“고도”(孤島)/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독이
 날 괴롭히네/ 리별보다 더 서러운 그리움이 날
 울리네/ 온 바다/ 울음을 한몸에 다 안고/ 오도
 가도 못하네

“세월”(세월)/ 강물을 덥석 안고/ 세월이 달
 러가네/ 파아란 언덕우에/ 고운 꽃을 수놓고/ 떠
 나네/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강물처럼 울며 가네

“파도”(波濤)/ 울듯울듯하면서/ 오다 가는
 님인가/ 갈듯갈듯하면서/ 가다 오는 몸인가/ 종
 내는 떠나지 못하는 바다/ 사랑의 모진 몸부림

“칠월칠석”/ 주룩주룩 오는 비/ 오작교 뿌린
 눈물/ 처마밑 락수물이/ 우리 집을 울린다/ 긴
 세월/ 찾지 못한 님이여/ 견우직녀 부럽다

이 네 작품은 제목을 달리하고있지만 주제는 만남을 그리워하고있다. 시인이 중국에서 한국어

로 작품을 쓰고있다는 사실이 선입견으로 작용하는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감정을 되도록 배제하려고 애써도 이 작품은 그렇게 읽힌다. 고국을 그리는 심정이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만남의 상징물로 만드는데있다.

“고도”는 시인이 처한 상황의 상징이다. 그 리움 많은 삶, 고도(孤島)의 사위에서 치는 파도는 시인의 울음이 되여도 그 울음은 그대로 시인의 가슴으로 삭혀야 되는것,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것이다. 그 외로움을 잘 표현해냈다.

“세월”은 강물의 흐름에 인생을 비유한것이 지만 시조의 특성을 살려 초장에선 강물을 안고 세월이 가고 종장에선 세월이 강물처럼 울며 가는것으로 표현하여 운률을 가진 시조의 멋을 한껏 살려내고있다. 우리 말을 부리는 솜씨가 탁월하다.

“파도”는 한국어의 맛이 깨끗하게 우러나있다. 울듯울듯/ 갈듯갈듯을 넘과 몸으로 대구로 만든 초, 중장을 종장에서 사랑의 모진 몸부림으로 마무리하는 솜씨가 시조의 맛을 잘 우러나게 하고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심사가 마냥 파도로 울고있는것이다.

“칠월칠석”은 견우와 직녀에 대한 전설을 토대로 하여 오래 만나지 못하는 그리운 사람들을 일년에 한번 만나는 견우직녀도 한없이 부럽게

생각하도록 만든것이다.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으면 1년에 한번 만남이 그리도 부러울수 있을가. 만남에 대한 애절함이 스며오도록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3

자연현상과 자연물을 노래한 작품들도 아주 쉽게 읽히면서도 절실한 그 무엇인가를 담고있다.

“바가지”/ 달빛 먹고/ 달이 된 박/ 환한 초가 지붕/ 흥부박/ 복바가지/ 즐거운 옛이야기/ 바가지/ 박으로 지은 이름/ 박꽃향이 그윽하다

이 작품의 경우 초장의 달빛을 먹고 달이 된 박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깨끗하다. 고향과 동심이 그대로 살아있는듯하다. 중장은 우리 고전의 이야기를 끌고 오고, “바가지”라는 이름이 박에서 왔을것이라는 상상과 어우러지게 하여 우리 고전과 우리 말의 향을 그 하얀 박꽃으로 피워 민족성을 드러내고있다.

“저녁노을”/ 런못에 내린 노을/ 고기들이 뽁뽁 빠네/ 동그라미 그리며/ 예서 뽁뽁 제서 뽁뽁

/ 금노을/ 다 먹고 어두워지니/ 수정궁 들어가네

런곳에 내린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
곳함이 여유로움으로 빛난다. 이미지를 잘 살려
낸것이 이 작품의 큰 미덕이다. 고기들이 짹짹,
짹짹, 노을을 먹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시
인의 깨끗한 시심이 저녁노을처럼 아름답다.

“팽이”/ 된매를 맞아도/ 눈물 없는 이쁜이/
꽃꽂이 일어서서/ 얼음판을 누빈다/ 뽀족한 송곳
외다리/ 팽글팽글 발레무 울고 가네

팽이를 돌리던 어릴적을 되돌아보았음직한
작품이다. 초장의 이쁜이가 중장에서 발레무를
추는 무희로 전환되면서 그야말로 팽글팽글 도
는 모습을 떠오르게 표현했다. 그 팽이는 의미를
확장하면 이국에서 곳곳하게 한국어를 지키고
가꾸는 시인의 모습으로 환치되기도 한다.

“고추”/ 장미보다 더 빨강고/ 해보다 더 눈
이 시다/ 잔뜩 독을 올리고/ 어디 덤벼봐라 한다
/ 진짜로/ 맵기는 세상 으뜸/ 넌 코리아족속이다

붉은 고추에서 당당한 한국인의 의지를 읽어
낸 작품이다. 그렇다. 한국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것인가. 반도의 작은 국가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나라를 빼앗겼
던 설움 이기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악
조건속에서도 당당한 코리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사실을 시조작품으로 승화시켜 민족의 긍
지를 느끼게 한다.

“까마귀”/ “가오! 가오!” 다급한 소리/ 꽃사
슴 휘짝 뿔다/ 살금살금 기여가던 호랑이 멈춰섰
다/ 까마귀 날아가는 하늘 고마와/ 목메여 우는
사슴

까마귀 울음소리를 통해서 거대한 서사구조
를 시조의 단아한 형식속에 담았다. 까마귀 울음
소리가 사슴을 쫓는 호랑이의 걸음을 멈추게 했
다는 설화 하나가 이 작품속에 담기지 않았는가.
시조의 형식이 결코 답답한것이 아님을 보여주
고있다.

“물어보리”/ 효성의 바다 깊이/ 심청에게 물
어보리/ 사랑의 하늘 높이/ 직녀에게 물어보리/
이 세상 정조도덕은/ 춘향에게 물어보리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이 아니면 쓸수 없는 작
품이다. 심청전과 견우직녀전설, 춘향전의 주제